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세 번째

레드 와인의 포도원

Jeff Pippenger
2025-12-03

우리는 이전 글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마무리했다. "이러한 개념들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9/11 당시 요엘서가 어떻게 오순절에 베드로가 지목한 메시지가 되었는가?"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그 날은 오순절기의 끝을 표시하는 시점이었다. 오순절기에는 처음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고, 끝에는 더 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다. 믿음으로 성경과 예언의 신이 요엘서를 늦은비의 때에 적용하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요엘서가 9/11에 현재 진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책의 모든 요소가 9/11에서 시작되어 마지막 일곱 재앙에 이르기까지의 예언적 역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엘은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 부른다.

1888년이 이를 상징하듯, 9/11에는 라오디게아 기별의 제시가 현시대의 시험이 되는 진리가 되었다. 이사야는 5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는 나팔 같은 음성으로 그 동일한 기별을 상징한다. 이사야가 자기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기 시작하는 그 '날'은 그가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 날과 같다.

그 날에 너희는 이렇게 노래하라: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아." 나 여호와가 그것을 지키며, 매 순간 물을 주리니,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리라. 내게는 분노가 없도다. 누가 싸움에서 나를 대적하여 가시와 찔레를 내게 대겠느냐? 내가 그것들을 꿰고 지나가며, 한꺼번에 불사르리라. 아니면 내 힘을 붙잡아 나와 화평을 맺게 하라; 그러면 그는 나와 화평을 맺으리라. 그가 야곱에게서 난 자들이 뿌리내리게 하리니, 이스라엘이 꽃피고 움터서 그 열매로 온 세상의 지면을 가득 채우리라. 이사야 27:2-6.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은 늦은 비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꽃이 피고 봉오리가 트며, 온 지면을 열매로 채우리라'는 말씀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는 이른 비가 식물에 싹과 꽃을 피우게 하고, 늦은 비가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다. 9/11에 뉴욕의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가 내려왔고,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팔을 불어야 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이사야의 메시지는 또한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다. 요엘서 1장은 바로 그 메시지이다.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을 들으라, 너희 노인들아. 땅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너희의 날에 있었느냐, 혹 너희 조상들의 날에도 있었느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라. 너희 자녀가 그들의 자녀에게 말하게 하며, 그 자녀가 또 다른 세대에게

말하게 하라.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깨어라, 술 취한 자들아, 올라.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새 포도주 때문에 울부짖으라.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강하고 수효가 헤아릴 수 없는 한 나라가 내 땅에 올라왔으니,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 같고,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내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하고, 내 무화과나무의 껍질을 벗겼나니, 말끔히 벗겨 버리고 던져 버렸으므로 그 가지가 희어졌도다. 처녀가 젊은 시절의 남편을 위하여 굵은 베로 허리를 동이고 애통하듯이 슬퍼하라. 소제와 전제가 주님의 집에서 끊겼으니, 주님의 종들인 제사장들이 애곡하는도다. 밭이 황폐하고, 땅이 슬퍼하나니, 곡식이 황폐하였음이라; 새 포도주는 말랐고, 기름은 쇠하였도다.

농부들아, 부끄러워하라. 포도 재배자들아, 밀과 보리를 위하여 울부짖어라. 밭의 수확이 망해 버렸기 때문이다. 포도나무는 말라 버렸고, 무화과나무는 쇠잔하였으며, 석류나무와 종려나무도, 사과나무도, 들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이는 인생들에게서 기쁨이 말라 버렸기 때문이다.

허리를 동여매고 슬피 올라, 제사장들아; 울부짖으라, 제단의 수종자들아. 와서, 굵은 베를 입고 밤새도록 누워라, 내 하나님의 수종자들아. 소제와 전제가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졌음이라. 금식을 성별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집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와 그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오는 멸망 같이 임하리로다. 우리 눈앞에서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정녕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과 즐거움도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었고, 창고들은 황폐하며, 곡간은 무너졌나니, 곡식이 시들었음이라. 짐승들이 어찌 신음하는가! 소 떼가 곤혹해하니, 초장이 없기 때문이라; 정녕 양 떼도 황폐하게 되었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겠나이다. 이는 불이 광야의 초장을 삼켰고, 불길이 들의 모든 나무를 태웠기 때문이니이다. 들짐승들도 또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는 물시내들이 말랐고, 불이 광야의 초장을 삼켰기 때문이니이다. 요엘 1:1-20.

요엘서의 첫 장은 하나님의 포도원이 파괴되는 일을 다루고 있다. 이사야는 "그 날"을 늦은 비가 시작되는 날로 규정하는데, 그 날에 식물들이 꽃이 피고 봉오리를 틔우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이 "뿌리를 내리고", "꽃피고 봉오리를 틔우며" "열매"로 땅을 채울 것이라고 알려 주는 사실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 점진적 역사를 보여 준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린다." 그러므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땅, 곧 바닥이나 기초 위에 선다는 뜻이다. "야곱에서 나오는 자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불린다. 라오디게아의 경험에서 나오는 자들은 그다음에 빌라델비아인이라 불리지만, 그 경험을 유지하려면 일요일 법령으로 끝나는 시험의 과정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야곱(빼앗는 자)과 이스라엘(이기는 자)의 예언적 관계는, 9/11에 기초로 돌아가 "뿌리를 내리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예언의

맥락에서 이름의 변화는 언약의 상징으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래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 등이 그 예이다. 그 구절에서 9/11에 옛 기초적 진리로 돌아간 자들은 비가 내려 꽃과 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할 때 언약 관계로 들어갔다. 일요일 법령 때에는 비가 한량없이 쏟아지므로 온 세상이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이사야 자신과, 그리고 물론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도 일치해야 하지만, 이사야는 나팔같이 목소리를 높여 포도원의 노래의 맥락에서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야 한다. 그 노래는 예수께서 포도원 비유에서 부르신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굽어보시면서, 옛 이스라엘이 그들의 유예 기간의 끝에 이르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음을 아시고, 그 포도원을 생각하시며 우셨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계셨다. 처음의 여호수아의 포도원 이야기이든 마지막의 예수의 포도원 이야기이든,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일백사십사천을 표상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의 포도원 예언에 대해 말씀하셨고, 화잇 자매도 마찬가지다.

포도원의 비유는 유대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준다.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특권과 축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결실을 기대하신다. 그리스도의 실물교훈, 296쪽.

예언의 영에서 나온 마지막 진술로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보면 유익하다.

제23장 - 주님의 포도원

유대 민족

두 아들의 비유 다음에는 포도원의 비유가 이어졌다. 첫 번째 비유에서 그리스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제시하셨다. 다른 비유에서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풍성한 복을 가리키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실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보여 주셨다. 그분은 순종을 통해 그들이 성취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목적의 영광을 그들 앞에 제시하셨다. 미래의 베일을 거두시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온 민족이 그분의 축복을 상실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음을 보여 주셨다.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포도원을 심고, 그 주위를 울타리로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다.'

"이 포도원에 대한 묘사는 선지자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의 포도원에 관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우 비옥한 언덕에 포도원이 있었고, 그는 그곳에 울타리를 치고, 그곳의 돌들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포도를 맺기를 바랐다.' 이사야 5:1, 2."

농부는 황무지에서 한 구획의 땅을 골라 울타리를 치고, 개간하고, 갈아엎은 뒤,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한다. 그는 경작되지 않은 황무지와는 다른 이 땅의 뛰어난 자질이 자신의 보살핌과 수고의 결과를 드러내어 자신을 빛내 주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세상에서 한 백성을 택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훈련되고 교육받게 하셨다. 예언자는 말한다.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심은 것이라.” 이사야 5장 7절.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큰 특권을 베푸시고, 풍성한 선하심으로 그들을 넉넉히 축복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열매를 맺어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셨다. 그들은 그분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야 했다. 타락하고 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했다.

주님의 포도원으로서 그들은 이방 민족들의 것과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어야 했다. 이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은 악을 행하는 데 자신을 내맡겼다. 폭력과 범죄, 탐욕과 억압, 그리고 가장 타락한 행위들까지도 거리낌 없이 자행되었다. 불의와 타락, 그리고 비참함이 그 부패한 나무의 열매였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가 맺을 열매는 그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어야 했다.

모세에게 계시된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은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이었다. 모세의 기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에 응답하여, 주께서는 '내 모든 선하심이 네 앞을 지나가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출애굽기 33:18, 19.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고,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이라.' 출애굽기 34:6, 7.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서 원하신 열매였다. 그들의 품성의 순결함과 삶의 거룩함, 그리고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통해,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라는 사실을 보여야 했다. 시편 19:7.

유대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고자 하셨다. 이스라엘을 통해 그분의 빛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도록 길을 예비하셨다. 세상의 민족들은 타락한 관습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교회를 통해 그들이 그분을 알게 될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 또한 자신의 백성을 통해 드러난 원칙들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는 수단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바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우상 숭배하는 친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명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2.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그 크고 사악한 민족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도록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다. 요셉의 정직함과 이집트 온 백성의 생명을 보존한 그의 놀라운 일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표상이었다. 모세와 다른 많은 이들도 하나님의 증인이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면서 다시금 자신의 능력과 자비를 나타내셨다.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들이 광야를 지나 행할 때 그들과 더불어 행하신 처사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게 교훈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신 것이었다. 주께서는 모든 인간의 권세와 위대함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표징과 이적들은 자연 위에, 그리고 자연을 숭배하던 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들 위에도 미치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들에 온 땅을 지나가실 것처럼, 교만한 애굽의 땅을 지나가셨다. 불과 폭풍과 지진과 죽음을 통하여, 위대하신 '스스로 계신 이'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속박의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분은 그들을 '크고 두려운 광야, 곧 불땀과 전갈과 가뭄이 있는' 곳을 지나게 하셨다. 신명기 8:15. 그분은 '차돌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의 곡식'으로 그들을 먹이셨다. 시편 78:24. '이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와 분깃은 그의 백성이요, 야굽은 그의 기업의 몫이라. 그가 그를 광야 땅에서, 황량하고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를 두루 인도하시며 그를 가르치시고, 눈동자 같이 그를 지키셨도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고 새끼들 위를 너울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그들을 받으며 그 날개 위에 업는 것 같이, 여호와만이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 32:9-12. 이처럼 그분은 그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셔서,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랑하던 동안 그들의 지도자이셨다. 낮에는 구름기둥에, 밤에는 불기둥에 감싸이신 채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셨다. 그분은 광야의 위험에서 그들을 지켜 주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민족의 눈앞에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택하신 소유, 주의 포도원으로 세우셨다.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그들은 그의 율법의 규례들, 곧 진리와 정의와 순결의 영원한 원칙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원칙들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보호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죄악된 행실로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데서 그들을 구해 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포도원에 있는 망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땅 한가운데에 자신의 거룩한 성전을 두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스승이셨다. 그분은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의 스승이자 인도자가 되셨다. 성막과 성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은 속죄소 위에 있는 거룩한 쉼기나 가운데 거하였다. 그들을 위하여 그분은 항상 그분의 사랑과 인내의 풍성함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자 하셨다. 그들에게 모든 영적 특권이 주어졌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되도록 성품을 형성하는 데 유익한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으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세계의 모든 나라 앞에서 놀라운 번영의 본보기가 될 것이었다. 모든 공교한 일에 지혜와 기술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은 계속 그들의 스승이 되시며, 그분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을 고귀하게 하고 높이실 것이었다. 그들이 순종한다면, 다른 민족들을 괴롭힌 질병으로부터 지켜지고, 지성의 활력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온갖 번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위엄과 권능이 드러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방백들의 왕국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모든 편의와 수단을 제공하셨다.

가장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제시하시고, 그들의 번영의 조건을 분명히 하셨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가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자기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 대에 이르기까지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만약 너희가 이 규례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인자를 네게 지키실 것이며, 너를 사랑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또한 네 태의 열매와 네 땅의 소산, 곧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 소 떼의 새끼와 네 양 떼를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복 주실 것이다. 너는 모든 백성보다 복을 받으리라.... 또 여호와께서 네게서 모든 질병을 제거하시고, 네가 아는 애굽의 악한 질병들 가운데 어떤 것도 네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7:6, 9, 11-15.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밀을 주시고 바위에서 꿀을 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오랜 날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시며, 그분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리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잃었고, 죄 때문에 온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지시를 따르면 그들의 땅은 비옥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토지 경작에 관하여 그들에게 지침을 주셨고, 그들은 그 회복에 그분과 협력해야 했다. 이렇게 하여 온 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영적 진리를 보여 주는 산 교훈이 될 것이었다. 그분의 자연 법칙에 순종함으로 땅이 그 보화를 내듯이, 그분의 도덕법에 순종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은 그분의 성품의 속성을 반영해야 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의 우월함을 인정할 것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보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으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이 큰 민족은 지혜롭고 명철한 백성이다'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부르짖는 모든 일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과 같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처럼 가까이 있는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4:5-8.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하여 주신 모든 영토를 차지해야 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거부한 민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의 품성을 드러내심으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고자 하셨다.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했다. 희생 제사 제도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만민 앞에 높여질 것이며,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살게 될 것이었다. 가나안 여인 라합과 모압 여인 롯처럼 우상숭배에서 떠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연합해야 했다. 이스라엘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경계를 넓혀, 마침내 그들의 왕국이 온 세상을 아우르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그분의 자비로운 통치 아래로 이끄시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땅이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사람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고, 하늘의 평안으로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분은 이 땅의 가정들이 하늘에 있는 큰 가족의 상징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주께서 선언하셨다. '내가 너를 고귀한 포도나무, 온전히 바른 씨로 심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내게 이방 포도나무의 퇴화한 가지로 변하였느냐?' 예레미야 2:21. '이스라엘은 빈 포도나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호세아 10:1. '이제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 포도원에 내가 하지 않은 것 가운데 더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포도를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자, 내가 내 포도원에 무엇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리니, 그것이 먹혀 버릴 것이요; 그 담을 허물리니, 그것이 짓밟힐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가지치기하지도 파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쪼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는 ...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보라 압제요; 의를 바라셨으나, 보라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이다.' 이사야 5:3-7.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불신실함의 결과를 제시하셨다. 그의 언약을 지키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스스로를 끊어 버리게 되고, 그분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없게 된다. "조심하라," 모세는 말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네가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하게 되며, 네 소 떼와 양 떼가 번성하고, 네 은과 금이 늘어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많아질 때, 네 마음이 높아져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이 재물을 얻었다 하게 될까 하노라.... 만일 네가 조금이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하시는 그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명기 8:11-14, 17, 19, 20.

그 경고를 유대 백성은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그분의 대표자로서의 높은 특권을 상실했다. 그들이 받은 축복은 세상에 아무런 축복도 가져오지 못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이점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이웃들에게서 종교적 인도와 거룩한 본을 빼앗았다. 대홍수 이전 세상의 주민들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따라갔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들이라"(예레미야 7:4)고 말하며 거룩한 것들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나타내고,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그분의 성소를 더럽혔다.

주님의 포도원을 맡아 관리하라고 세워진 농부들은 맡겨진 책임에 충실하지 않았다. 제사장들과 교사들은 백성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를 항상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 농부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구했다. 그들은 포도원의 열매를

자기 것으로 삼고자 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주목과 존경을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애썼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지도자들의 죄책은 평범한 죄인의 죄책과 같지 않았다. 이들은 하나님께 가장 엄숙한 의무 아래 서 있었다. 그들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를 가르치고, 자기들의 실제 삶에서 엄격한 순종을 실천하겠다고 스스로 서약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성경을 왜곡하고 있었다. 그들은 삶의 모든 걸음에 미치는 의식들을 강요하여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 백성들은 랍비들이 정해 놓은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았다. 사람이 만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소홀해졌다.

주님은 그분이 포도원의 주인이며, 그들의 모든 소유가 그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들에게 맡겨진 것임을 그분의 백성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교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다루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의 거룩한 직분의 일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의 일을 진전시키도록 그들에게 맡겨진 수단과 자원을 그분에게서 체계적으로 빼앗고 있었다. 그들의 탐심과 탐욕 때문에 그들은 이교도들에게조차 멸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방 세계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 나라의 법을 잘못 해석할 구실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오래 참아 주셨다. 그는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자비로 그들을 간곡히 권면하셨다. 인내로 그들의 죄를 그들 앞에 드러내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들이 그것을 시인하기를 기다리셨다. 예언자들과 사자들을 보내어 소작인들에게 하나님의 권리를 요구하게 하셨으나, 그들은 환영받기는커녕 원수로 취급당했다. 소작인들은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도 처음과 같은 대우를 받았고, 다만 소작인들은 더욱 완강한 증오를 드러냈다.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시며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나 계속된 저항으로 그들은 복수심에 사로잡혔고,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자, 그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빼앗자." 그러면 우리는 포도원을 마음껏 누리고, 그 열매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과의 관계를 끊었고, 공의로운 화해를 위한 그분의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스도께서는 포도원의 주인의 권리를 주장하시려고 오셨으나, 소작농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를 노골적으로 업신여겼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시기했다. 그의 가르침의 방식은 그들의 것보다 훨씬 뛰어났고, 그들은 그의 성공을 두려워했다. 그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들의 행로가 가져올 확실한 결과를 보여 주셨다. 이것이 그들을 광기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잠재울 수 없는 책망에 몹시 괴로워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제시하신 높은 의의 기준을 미워했다. 그들은 그의 가르침이 그들의 이기심이 가려짐 없이 드러나는 처지에 그들을 놓고 있음을 보고,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그의 진실성과 경건의 모범과 그가 하신 모든 일에 나타난 숭고한 영성을 미워했다. 그의 전 생애는 그들의 이기심에 대한 책망이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순종이나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불순종이나를 의미하는 마지막 시험이 닥쳤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절했다. 그리스도와 바라바 중에서 택하라고 요구받자, 그들은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라!' 하고 외쳤다. 누가복음 23:18. 또 빌라도가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사납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쳤다. 마태복음 27:22.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고 빌라도가 묻자,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라는 대답이 나왔다. 요한복음 19:15. 빌라도가 '이 의인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고 말하며 손을 씻었을 때, 제사장들은 무지한 무리와 함께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격렬히 외쳤다. 마태복음 27:24, 25.

이렇게 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선택을 내렸다. 그들의 결정은 요한이 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있는, 아무도 열 수 없었던 그 책에 기록되었다. 그 복수심 그대로 이 결정은 유대 지파의 사자께서 이 책의 인을 떼시는 날 그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유대 민족은 자신들이 하늘의 총애를 받는 민족이며, 하나님의 교회로서 언제나 높임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했고, 그들의 번영의 토대가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견고해 보였기에 하늘과 땅이라도 그들의 권리를 빼앗아 보라고 도전했다. 그러나 신실하지 못한 삶으로 그들은 하늘의 심판과 하나님과의 분리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의 악행의 절정을 이루는 행위를 묘사하신 뒤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런즉 포도원의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사장들은 이야기를 깊은 관심으로 따라가다가, 그 내용이 자신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백성과 함께 대답했다.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멸망시키고, 제때에 그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그의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멸망을 선고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자, 그분의 꿰뚫어보시는 시선 아래 그들은 그분이 자기들의 마음의 비밀을 읽고 계심을 알았다. 그분의 신성이 부인할 수 없는 권능으로 그들 앞에 드러났다. 그들은 그 농부들에게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았고, 저도 모르게 외쳤다. "그럴 수 없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엄숙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으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라는 말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서 빼앗겨 그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어지리라. 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리라; 그러나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였다면 유대 민족의 파멸을 막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시기과 질투가 그들을 완고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을 거부했고,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한밤중의 어둠과 같은 암흑에 둘러싸였다. 예고된 파멸이 유대 민족에게 임했다. 그들 자신의 사나운 걱정이 제어되지 못해 그들의 멸망을 초래했다. 눈먼 분노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죽였다. 그들의 반역적이고 완고한 교만이 로마 정복자들의 진노를 불러왔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은 폐허가 되었으며, 그 터는 발치럼 갈아엎어졌다. 유대의 자손들은 가장 끔찍한 형태의 죽음으로 죽어갔다. 수백만 명이

이방 땅에서 노예로 팔려가 섬기게 되었다.

한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했고, 포도원은 그들에게서 거두어졌다. 그들이 남용한 특권과 소홀히 한 일은 다른 이들에게 맡겨졌다.

"포도원의 비유는 유대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준다.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특권과 축복을 부여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결실을 기대하신다." 그리스도의 실물 교훈. 284-296.

요엘서는 세상 마지막 때의 늦은 비의 역사를 밝혀 준다. 늦은 비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메시지이다. 늦은 비는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가리킬 뿐 아니라, 스가랴의 금 기름, 이른 비와 늦은 비, 제단의 불 및 다른 표상들로 상징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 과정도 의미한다. 늦은 비는 단지 메시지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지되는 유일한 성별된 성경 연구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그 방법론은 이사야서 28장에 나오는 '줄 위에 줄'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에서나 현대 이스라엘의 시작에서나, 하나님, '농부'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 내셨다. 이집트에서의 430년 포로 생활이었던,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암흑시대의 포로 생활이었던, '광야'는 노예 상태와 포로됨의 상징이기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끌어 내심을 받았다. 고대의 문자적 이스라엘이든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의 포로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친히 택하신 소유, 주의 포도원'으로 '세우셔서', 제사장과 방백이 되도록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탁'을 대표하는 특권을 '맡기셨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신탁'은 율법이었고, 현대 이스라엘에게는 율법과 예언 모두였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당신의 교회를 세상에서 빛으로 서도록 부르셨다. 진리의 강력한 칼로, 곧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으로써, 그분은 그들을 교회들로부터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당신 자신에게 거룩하게 가까이 이끄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탁자로 삼으셨고, 이 시대를 위한 예언의 위대한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옛 이스라엘에게 맡겨졌던 거룩한 말씀과 같이, 이것들은 세상에 전해져야 할 신성한 위탁이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들이고,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경고를 외치기 위하여 그분의 대리자로 나아가는 백성을 나타낸다." Testimonies, volume 5, 455.

현대 이스라엘은 성령의 능력 아래 개인의 경험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면서, 늦은비의 능력 아래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선포하도록 세워졌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늦은비가 부어 주심을 받는 동안 성취되는데, 그때에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 한 무리가 거짓된 '평안과 안전'의 늦은비 기별을 퍼뜨리고 있다. 이들은 이사야가 말한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이요, 요엘이 말한 입에서 새 포도주가 끊어진 술 마시는 자들이다. 참된 늦은비 기별을 받는 자들은 바벨론의 음식은 거절하고 하늘의 양식을 택한 다니엘,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로 대표된다. 이들은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뿐 아니라 포도원의 노래도 부르는 14만 4천인데, 이는 포도원의 비유가 고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시작될 때 모세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그 언약 관계의 끝에는 어린양의 역사 속에서 다시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포도원의 노래는, 새 언약의 백성이 주님과 혼인할 때 옛 언약의 백성은 외면당하게 된다는 결론으로 끝난다. 주님께서서는 사십 년 광야 생활 중에 죽은 자들은 지나치시고,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죽을 자들과는 이혼하시면서, 여호수아와는 언약을 맺으셨다. 주님께서서는 고대 이스라엘과 이혼하시는 바로 그때에 기독교 교회와는 혼인하고 계셨다. 알파, 곧 시작의 역사는 모세가 대표하고, 오메가는 어린 양이 대표한다. 그들이 대표하는 역사는 포도원 비유의 역사이므로,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는 요한 계시록의 요한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러한 생각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 말들은 화이트 자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며, 그분의 사자가 너희에게 전하라고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더 이상 그분과 엇갈린 목적을 가지고 일하지 말라고 촉구하신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면서도 사탄의 속성을 드러내고, 정신과 말과 행동으로 진리의 전진을 대적하며, 사탄이 이끄는 길을 분명히 따라가는 자들에 관하여 많은 훈계가 주어졌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결코 그들에게 속하지도 않고 그들이 행사해서도 안 될 권위를 움켜쥐었다. 위대한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뒤였고, 또 뒤였고, 또 뒤였으리라." 배틀크릭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와의 성전, 여호와와의 성전은 우리라" 하지만 그들은 속된 불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지고 굴복하지 않았다. Manuscript Releases, 제13권, 222.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목적이 있으나 너희는 그것을 좌절시키고 있다. 그분은 너희가 머지않아 간절히 저지되기를 바라게 될 그러한 상태가 오도록 허락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너무 늦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잔혹하고 거짓된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기름부어 세우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랑하는 미혹에 너희를 내어버리실지. 충성되고 굳건하며 진실한 설교자들이 우리 감사할 줄 모르는 교회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이들이 되고 말지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이미 파괴자들이 사탄의 손아래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몇 명의 기수들이 더 떠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주께서 평안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거짓 선지자의 음성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외치려 하는지 모른다. 나는 좀처럼 울지 않지만, 지금은 눈물이 눈을 가리고 있다. 글을 쓰는 동안 그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지고 있다. 아마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모든 예언이 끝나고, 백성을 흔들던 그 음성이 더 이상 그들의 육신의 잠을 깨우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그분의 이상한 일을 행하시고, 거룩한 손들이 더 이상 언약궤를 메지 않을 때, 백성에게 화 있을진저. 오, 네가 이 날, 곧 네 날에 네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오, 우리 백성이 니스워처럼 힘을 다해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 믿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시기를! 증언, 제5권, 77쪽.

"마음의 완고함을 방치하고, 교만과 자기 의로 인해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탄의 유혹에 내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잘못을 드러내 주실 때 회개하거나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의 섭리로 말미암아 당신은 같은 자리를 거듭 밟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비슷한 성격의 실수를 계속 저지르도록

내버려지고, 지혜가 계속 부족할 것이며, 죄를 의라 하고 의를 죄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팽배할 수많은 미혹이 당신을 에워쌀 것이며, 당신은 지도자를 바꾸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12월 16일.